

Comments '102'

« 1 2 3 »

○○ 2017.09.23 21:41

본문에 추가할 내용있으면 좀 알려주라

 댓글

↳ ○○ 2017.09.23 21:55

뜨루 인텟에서 소개한 내용이나 리스닝세션 후 기사내용 이런것도 같이 묶으면 좋긴 한데 처음부터 다 모아놓으려면 너무 큰 일이 되겠지?

아니 난 근데 사실 너무 체계적으로 각잡을 필요 없이 그냥 말랑한 분위기에서 하고픈 얘기 막 하면 좋겠다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3 22:40

너무 거창해보이나 ㅋㅋㅋ 그냥 막말 던지면 막말 되는거다 쭈글쭈글 지우까?

 댓글

↳ ○○ 2017.09.23 22:52

지금 이상태로 그냥 대충 시작해보자 ㅋㅋ

 댓글

↳ ○○ 2017.09.23 22:53

그냥 여기서 막 떠들자 ㅋㅋㅋ 하다보니 짬나다 ㅋㅋ

 댓글

○○ 2017.09.23 22:40

여기에 뭔 글을 써야하나 그냥 소소하게 빨글도 써도 되냐 뭔가 생각하게 한다

 댓글

↳ ○○ 2017.09.23 22:43

빨글 - 내가 지금 사랑해 노래 듣다가

사랑을 노력한다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닌걸~

이부분 ㅋㅋ

예전 문오가요제에서 ㅈㄹ이 했던 루이암스트롱 톤 아니냐 ㅋㅋ

뜨루도 한목소리로 여러 목소리를 내니 가히 천상의 목소리 신이 내린 재능 아니냐고ㅋㅋ

 댓글

○○ 2017.09.23 22:43

일단 유비 티저에 유비에 몸 메이킹까지 보고나니 비주얼 때문에 곡 리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 달고 다니는 빨강 검정 꼬리도 달고 찍은거 왜 맘에 드냐 그냥 진짜 편하게 찍은? 그냥 평소 모습 같은?

댓글

↪ ○○ 2017.09.24 09:40

비주얼때문에 리뷰를 할수가 없는 상태가 된거 맞냐 ㅋㅋㅋㅋㅋㅋ 그런것 치고는 다들 달렸는데?ㅋㅋ
ㅋㅋㅋㅋ그리고 꼬리 단거 나는 몰랐다 ㅋㅋㅋㅋ 모르는 부분 알려줘서 고맙ㅋㅋ

댓글

○○ 2017.09.23 22:48

진짜 현실적인 뭐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예전같지는 않은 연애하다가 7개월 21일쯤 되었을때의 느낌을 엑기스처럼 잘 나타낸 구절을 꼽아보려고 하는데 진짜 구절구절 너무 현실적이고 와닿아서 하나를 꼽기가 힘들다

댓글

↪ ○○ 2017.09.23 22:52

7개월 21일의 기준이 뭐야 대체 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3 22:53

왜 하필 7개월 21일이나 ㅋㅋㅋㅋ

댓글

○○ 2017.09.23 22:57

유비 얘기를 해보자면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유비가 참 지금 나이대의 뜨뚜를 잘 담아냈다 ㅋㅋ
게다가 몸짓이나 뜨뚜가 흥에 겨워 하는 여러가지를 적재적소에 담아서 적절한 파트에 잘 끼워넣었다 ㅋㅋ
ㅋㅋ 뜨뚜가 이러한 순간 도세요 라던지 이럴때 뛰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안되잖나 ㅋㅋㅋㅋ

특히 켈 인상깊은 부분은 빨간 후드 쓴채 뜨뚜가 폴짝 뛰며 빙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때 사!랑해에~ 하면서 곡이 확 터지는 후렴구부분이다 ㅋㅋㅋ
이부분에 이 몸짓이 매우 적절하다

댓글

↪ ○○ 2017.09.23 23:01

밝고 해맑은 그러니까 딱 지금의 23살 뜨뚜를 보고싶을때 종종 찾아보는 유비가 될거 같다 ㅋㅋㅋ 이 느낌은 이때 아님 또 못살릴것도 같고 그래서 이 유비를 지금 찍어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줘서 고맙다
ㅋㅋㅋ

저번 팔라때도 그랬지만 그때는 뜨뚜의 취향이나 그런부분을 잘살린거 같아 좋았다면 사랑해 유비는 지금의 뜨뚜를 잘 표현해줘서 좋다
난 어떤 몸이든 뜨뚜가 담겨있고 표출할 수 있는 유비가 좋고 그게 켈 잘만든거 같다 ㅋㅋㅋ
이와 같은 이유로 런어웨이 유비도 참 좋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

한줄요약 : 유비 감독님 사랑해

댓글

↳ ○○ 2017.09.23 23:23

여기다 몸 리뷰쓰는거 아니냐 ㅋㅋㅋㅋ 그럼 김해났다 옮겨써야겠군

댓글

↳ ○○ 2017.09.23 23:29

사실 글에 뮤비 티저에 뮤비에 메이킹까지 보고나니까 노래에 집중이 안 된다 뮤비 리뷰 되버리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뮤비에 대해 할 말 할만큼 하고 나면 곡이랑 가사 얘기도 하겠지 뭐 휘비적

댓글

↳ ○○ 2017.09.23 23:31

ㅋㅋㅋㅋ그렇다 일단 시각적인 자극이 넘 강하다 ㅋㅋㅋㅋ 뭐 천천히 다 하면 되지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3 23:40

여기다가 그 1분짜리 덩고까지 가져다 붙이면

곡 얘기는 평생 못 할지도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3 23:50

하는김에 다 하자 ㅋㅋㅋㅋ 댓글 1221개 만들지
뭐 ㅋㅋ

댓글

↳ ○○ 2017.09.23 23:34

휘비적ㅋㅋㅋㅋㅋㅋ

댓글

○○ 2017.09.23 23:43

이젠 뭐를 해도 이미 해본 기분이야 / 각자의 삶을 살다 만나러 가는 길에 이미 숨이 너무 가빠

다른 가사도 와닿지만 이 부분은 공감 지수 300프로쯤 되는듯

댓글

↳ ○○ 2017.09.24 00:11

웃 나도 밑에 썼다 ㅋㅋㅋㅋ

댓글

○○ 2017.09.23 23:51

남과 여 다들봤나

그 웹툰 보고 되게 맘이 복잡하고 공감도 가고 그랬는데 뜨뚜가 그 웹툰 보고 노래 만들었다고 했잖나

댓글

○○ 2017.09.23 23:53

그것도 보고싶었는데 아직 곡 하나하나도 다 씹지를 못해서 ㅋㅋ

댓글

↳ ○○ 2017.09.24 00:00

그거 보면 이 가사가 더욱 와닿고 새롭게 보일거다
그 웹툰의 무드가 오래된 연인의 슬픔과 공허함을 잘 나타내는 우울함인데 그걸 이렇게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참 좋았음

댓글

↳ ○○ 2017.09.24 00:16

이 댓글 보고 몇편 보고 왔는데 와 진짜 가사 하나하나가 장면이랑 오버랩된다
좋은 책을 읽고 나서 화답같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다.
텍스트로 보니 웹툰의 장면과 쓰두의 감상이 더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쓰두 어렸을때 독후감대회 같은거 나가면 잘했을 것 같고 막 ㅋㅋㅋ

댓글

↳ ○○ 2017.09.24 00:30

독후감대회 ㅋㅋㅋㅋ
쓰두 표현력이 좋다 ㅋㅋㅋㅋ 왠지 책도 많이 읽었을거 같다 가사 표현력보면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4 15:58

독후감은 잘 썼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글씨를 못 알아봐서 수상을 못 했을듯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4 16:09

이거 뭐야 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5 11:22

아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4 00:29

지금 나도 가서 읽는 중인데
이거 첫 회만 딱 봤는데도 저들처럼 되기 전에 헤어지자 소리 하는건가 싶은데 더 읽으면 달라지나?
ㅋㅋ

사실 웹툰이라하고 제목도 상투적이길래 원 로맨스 같은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게 아니었군 오늘
밤에 정주행 다 할듯하다 그럼체부터 다 맘에 드네

댓글

↳ ○○ 2017.09.23 23:54

못봤다 ㅋㅋㅋㅋ 나 병자가 넘 바쁘다 ㅋㅋㅋㅋ 나중에 도서관 가서 봐야지

댓글



○○ 2017.09.23 23:53

내가 객적으로 기억에 남는 가사 부분은

사랑을 노력한다는건 사랑이 아닌걸
설렘이 빠진 사랑에게 남는건 결국 정뿐인걸

이 부분이다.

사랑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 상태에 대한 폭넓은 적용도 된다고 생각한다.

댓글



○○ 2017.09.24 00:02

나병자는 저 두 라인을 보고

이 노래를 떠올렸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때 와 슴 저런 사랑의 정의가 있었구나 했는데

다른 발라드 가수도 아닌 뜨뚜 앨범에서 이런 정서를 느낄줄이야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



댓글



○○ 2017.09.24 00:27

나도 진짜 뜨뚜 앨범에서 노래들 들으며 진짜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 깜짝 놀랐다 ㅋㅋㅋㅋ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뜨뚜 가사에 깊이가 있더라고

나이답지 않은 경륜까지 느껴졌었다 ㅋㅋㅋ

아무래도 뜨뚜가 정신의 방에 갔다운게 분명하다 ㅋㅋㅋㅋ

댓글



○○ 2017.09.24 00:09

비슷한 맥락으로 나는

각자의 삶을 살다

만나러 가는 길에

이미 숨이 너무 가빠

이 부분 가사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

사랑에 관해서나 병자 말대로 그냥 사람사이의 관계에서나 가족들을 대할 때에나, 현생에 시달리느라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지치다보면 좋은 말 한마디 하는게 어렵고 날카로워지게 되는거 같더라고-

이미 가는 길에서부터 숨이 가쁘다는 표현이 되게 와닿았었다. 본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리저리 치이다보니 얼굴 보기 전부터 난 이미 기운이 빠져서 더 잘 해주지 못하는 버거움 같은 것 있지 않냐? 그러고 돌아와서 정신차리고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말이지.

말을 꺼내긴 했는데 결론을 못내겠다.
다시말해 워라벨은 소중한 것이다(?)

댓글

↳ ○○ 2017.09.24 00:18

근데 워라벨이 뭔지 물어봐도 되냐?

댓글

↳ ○○ 2017.09.24 00:21

요새 신조어다 ㅋㅋㅋㅋ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댓글

↳ ○○ 2017.09.24 00:24

정말 생각지도 못한 ㅋㅋㅋㅋ
사랑해의 결론은 워라벨이여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4 09:42

그렇네 워라벨 너무 중요하다

댓글

○○ 2017.09.23 23:58

근데 병자들은 스물세살에 저런걸 느껴보았음?

그냥 지켜워지면 헤어지고 어색해지면 헤어지고 영문 모르고 그럴 때 아님?

웹툰이 저런 감정을 가르쳐준게 아니었다면 뜨뚜의 감수성에 한번 더 박수를 보내고 싶음

댓글

↳ ○○ 2017.09.24 00:14

슴셋에 일단 제대로 연애를 해봤는지부터 물어보는건 어떠냐

댓글

↳ ○○ 2017.09.24 00:17

ㅇㅏ 맞네 ㅋㅋㅋㅋ 그게 먼저지 ㅋㅋ

그래도 저런 웹툰보고 공감가는게 그 나이 감성인가 아닌가 궁금하다 ㅋㅋ

나병자는 절대 저런거에 공감 안갔을 듯 ㅋㅋ

그래서 뜨뚜가 좀 성숙해 보인다 싶다 ㅋㅋ

 댓글

↳ ◦◦ 2017.09.24 00:22

승셋인데 지겨울때까지 연애했던 사람이 애초에 많지 않을거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 2017.09.24 00: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취

 댓글

↳ ◦◦ 2017.09.24 00:31

뜨뚜가 웹툰으로 이런 공감능력을 갖고 있으니 걱정없다 ㅋㅋㅋㅋ 앞으로도 웹툰 많이 보고 다양한 감성을 노래하는 곡을 써내라

 댓글

◦◦ 2017.09.24 00:20

미련 같은 시련이라면
(사랑한) 대가로 참을 거야

이 파트는 라임 살리면서도 뭔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듯 해서 좋다.
사실 저 파트에서 꼬집어낼 수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진 못했는데 병자들은 어떻게 해석들 했는지 궁금함 ㅎㅎㅎ
미련이 남아서 다시 어찌 해볼까 아니다 끝내자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사랑의 댓가로 참아야 할 시련이라 한건가?

 댓글

↳ ◦◦ 2017.09.24 00:26

내가 받아들인건 이별은 이미 결심한 상황임
그래서 이제 쫓내자는 말을 해야하는데
그냥 지루하다 그만 보자 하면 가오가 안 산다 아님?
그래서 돌려 돌려 좋게 좋게 포장을 하는 중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이라도)
정을 남긴 상태라서
우리 모습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남기고파

미련 같은 시련이라면
(사랑한) 대가로 참을 거야
나 밖에 몰랐었던 너니까 (너니까)
너 밖에 몰랐었던 나니까

밑바닥치고 끝까지 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은 지금 헤어지자
헤어지기에 아쉬운 미련 이라는 시련이 남겠지만 사랑했으니 감수해야지

뭐 이런건데 솔직히 그래서 이 곡의 감성은 나한테는 딱 절반만 다가오는 부분이다 ㅋㅋㅋㅋㅋㅋ
결국 지겨우니까 헤어지자 ㅜㅜ 돌려서 상큼하게 말하는거라

 댓글

↳

○○ 2017.09.24 00:30

나 밖에 몰랐었던 너, 너 밖에 몰랐었던 나,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왠지
남자가 더 여자를 사랑하는 걸로 들린다.
네가 너무나도 지켜워서 헤어지자 보다는
너를 사랑하는 채로 헤어지고 싶다는,
우리 사랑을 너덜너덜하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린다.
그게 그건가 ㅋㅋ
여하튼 지켜우니까 헤어지자는 건 나한테 좀 쿨하게 들린다면
사랑해에서 굿바이 마이럽 하는 것은 좀 쓰라리게 들린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가 좀 슬프다 나병자는.

 댓글

↶ ○○ 2017.09.24 00:34

같은 건데 다르다

너를 사랑하는 채로 헤어지고 싶다는
우리 사랑을 너덜너덜하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게 얼마나 큰 이기심인지 당해봤고 당하게 해봤으니까

결국은 저렇게 빠져나간 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상대를 기억하며 그 시절 우리 참 아름다웠지 라고
씨부릴 수 있지만
저렇게 남겨지는 자의 추억까지 아름답게 남겨줘주지는 못 한다 그건 결국 개인의 몫이거든

당해보니 더러웠고
당하게 해보니 사람 할 짓이 아니었다

 댓글

« First 1 2 3 Last »

Comments '102'

« 1 2 3 »

↳ ○○ 2017.09.24 00:37

하아 이기심일 수도 있겠네 정말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수도 있고 말이다
 사랑이란 참 어려운 것이로구나
 파도 파도 알 수가 없네
 뜨뜻덕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될 줄이야 ㅋㅋ
 원가 너병자에게 쓰디쓴 씨주를 권하고 시프다

댓글

↳ ○○ 2017.09.24 00:40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란 말이 딱 맞는듯

그런데 그걸 상대에게서 느끼는 그 순간
 결국 너와 나는 타인이었고
 너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위하는 듯 했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라며 거대한 현타가 밀려오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에게 너는 타인이 아니었는데 나는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위했던가 자문하게 되고

씨주는 못 마셔서 맥주로 웃돈 주고 교환해오겠다

댓글

↳ ○○ 2017.09.24 00:49

맥주 그래 하얀걸로 한잔 하자
 어쩌면 사랑은 내가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잘 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만 너에게 타인이었다는 현타,
 참 아픈데 사람 관계에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사람이란게 모두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존재다 보니
 아무리 애인이라도 자신이 고통받으면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이기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것도 결국 내가 힘드니까 피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니까
 미련같은 시련이 남는 것이겠제.
 (벌컥벌컥)

댓글

↳ ○○ 2017.09.24 00:51

아 여기 미련 같은 시련을 주제로 곡 하나 더 나오겠다 뜨뚜야
병자들 댕 보면서 내 생각도 좀 넓어지게 되는듯 ㅋㅋㅋ 좋다

댓글

↳ ○○ 2017.09.24 00:57

이 댕 쓴 병자인데 다시 읽어보니 꽤나 날이 서있는 어투라서 사족을 좀 달자면

"지겨우니까 헤어지자 돌려말하며 좋게 좋게 포장을 하는 자" 역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선의이고 너를 그리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마음아파하며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를 선의로 배려로 애정으로 받아들이지 못 한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거지

하지만 그 미련 정도를 시련이라 말한다면 뺨이 돌아 안 돌아?

댓글

↳ ○○ 2017.09.24 00:26

나병자는 미련을 갖는 시간, 좀더 잘 해볼걸 그랬다 괜히 헤어졌다 하는 후회 같은 아픔은 사랑하니까 받는 대가로 생각하고 참는다는 말 같았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련따위도 없겠지

그리고 라임이랄지 리듬이랄지 음악은 1도 모르지만

저 부분 련-련이 이어지고 (사랑한)이 끼어들어서 정말 현란한 느낌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댓글

○○ 2017.09.24 00:24

근데 마지막에 굿바말럽굿바이 반복하는 부분 뜨뚜만 부르는거 아니지?

댓글

↳ ○○ 2017.09.24 00:27

여자목소리가 있다

댓글

↳ ○○ 2017.09.24 00:32

뭐라고? 첨 알았다

그게 누구냐

댓글

↳ ○○ 2017.09.24 09:44

누군진 알 수 없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여자목소리 같음

댓글

○○ 2017.09.24 00:41

곡을 약간 구조적으로 풀어보자면

도입부에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보컬톤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마치 소설의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고, 영화로 비유하자면 롱샷을 잡는 느낌이랄까? 높은 하늘 위에서 전체 배경을 조망해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 처음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번 반복되는 후부분은 하나의 큰 주제를 푼 던져주는 느낌인데 이걸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좀 광범위하게 주제에 대해 말하면서 강조하는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랩파트에서는 두 주인공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훅 들어와서 세세한 얘기들을 풀어놓고 있는데 마치 가까운 거리에서 바스트샷을 잡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이 랩파트 덕분에 전체 가사의 공감도가 확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 암튼 난 랩파트의 배치나 가사 내용이 구조적으로 이 곡에서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아주아주 맘에둠ㅎㅎ

그리고 마지막에 굿바이 마이럽 굿바이 떴창부분은 피사체가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면서 아련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이라 이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것 같달까?

곡의 구성이나 곡을 이루는 구성요소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잘 받쳐주는 느낌이고 그 덕분에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여운이 남는 것 같다. 가사를 그냥 풀어놓기만 한게 아니라 서로 서로 잘 짜여져 있어서 공감대가 더 커질 수 있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댓글

2017.09.24 00:46

좋다 이 리뷰

읽으면서 오 그래 오 맞아 그렇지 그렇게 혼자 온갖 추임새 다 넣고 있음 ㅋㅋㅋㅋㅋ

댓글

2017.09.24 00:50

우어 정말 그러하다

막 내가 지미집 된것같고 그르타

댓글

2017.09.24 01:06

댓글이라 추천을 못하는게 아쉬울 따름이다

이거 댓글에 따봉 이모티콘이라도 좀 넣을 수 없냐

댓글

2017.09.24 01:08

이걸 읽고 다시 생각하니 랩파트가 뭔가 약간 투덜투덜거리며 연애 상담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 그러다가 아씨 어떡카냐!! 로 끝나는 연애 하소연?

그리고 이어지는 잠잠한 사랑을 노력한다는 건 이 부분은

진지하게 깊이 말을 잇고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그러면서 차차 생각이 정리가 되어가는

댓글

2017.09.24 01:11

난 노래마다 뜬뚱 목소리 몇가지 나오는지 헤아려보고도 싶다 ㅋㅋㅋ 지금 사랑해 막 들었는데 대충 들어서 적어도 목소리 5가지 이상같은데 ㅋㅋㅋ 한 곡에 ㅋㅋ

댓글

2017.09.24 01:16

ㅋㅋㅋㅋ 진짜 뜬뚱 목소리 완전 다양하지 않냐 ㅋㅋㅋㅋ 한사람이 이렇게 여러개 톤을 구사하냐 ㅋㅋㅋㅋ 그래서 3분을 혼자 채워도 우리가 없다

 댓글 ○○ 2017.09.24 09:46

맞아 ㅋㅋㅋㅋ 진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댓글

○○ 2017.09.24 10:51 (219.*.230.*)

이노래에 대한 첫인상은.. 티저, 노래, 유비 등 모두 스파클링와인이었다면 지금은..쏘주다! 소주 아니다! 쏘주다!!

사랑을 노력한다는건 이미 사랑이 아닌걸..

덤덤해졌던 예전 기억의 한장면이 소환되던 순간!

뭐라 딱 표현하기는 애매한 정도인데 무언가 분명히 변해가고 있던 관계와 분위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상대에게 토로하였다.

나름 덩덤하게 얘기하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순간은 착한 상대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하겠다.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순간이었다.

맨처음 시작할땐 '너를 좋아하지 않으려고 죽을듯이 애써봤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제발 마음을 받아달라고' 말했었지.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그말이 내게는 뭔가 막연했던 사실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던 듯!

뜨뚜 인터뷰를 보고 남과여라는 웹툰을 정주행하고 강제로 추억여행을 당한 며칠간이었다ㅋㅋㅋㅋㅋ 그 웹툰 참 괜찮더라

아직 안읽은 병자들은 추천한다!

뜨뚜를 통해서 이런 감정을 소환당하는 경험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었다.

사랑해 아직도! 하면서 이별을 말하는 이노래의 후렴구는

남과여에서 주인공들이 아프게 울면서 전화로 이별하는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나에게서 쓴쏘주가 생각나게 한다.

뜨뚜의 음악을 들으며 쓴쏘주라니ㅋㅋㅋㅋ

지금까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이 이 노래의 매력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된것 같아 조금 아쉽다.

분명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노래지만 요즘 조금은 흔한 스타일로서 내가 처음 느꼈던 스파클링와인의 달달 시원한 느낌만이 전달된 것 같은..

아직은 그런 감정을 깊게 표현하기에는 뜨뚜가 어린 것도 사실이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감정을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해내보고자 했던 뜨뚜가 참 멋지다

참 욕심많은 놈이야!!

조금 더 성숙해지면 정말 제대로 심장 깊숙히 저격하는 음악을 할줄 알것 같다는 기대에 확신이 생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저격당한 병자이고ㅋㅋ

사랑을 노력한다는건 이미 사랑이 아닌걸..

이 특별할 것 없는 가사에 매료당했다

 댓글 ○○ 2017.09.24 11:01

LOVE를 들으면서 FALL 을 느끼는 병자들이구만

 댓글

↳ ○○ 2017.09.24 11:43

뜨뚜의 의도가 통한것 같다 ㅋㅋㅋ

 댓글

↳ ○○ 2017.09.24 14:17

정말 쓴 쏘주 맞다 맞아
인가 무대 보면서도 느꼈는데
왜이리 씁쓸한지 모르겠다

이게 한 순간에 뻑 하고 관객한테 메세지가 꽂히는 내용이 아니라
음...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
다들 미워하는 그분이 뜨뚜한테 왜 가사가 어렵다고 했는지 조금 이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좋아하는 뜨뚜의 어떠한 면은 이런 복잡미묘한 마음과
럽&폴 같은 갭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음악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뜨뚜는 내면에 꽤나 복잡한 심리를 가진 사람 같다
그걸 다 게워내고 풀어내려면 아마도 진짜
자기 말마따나 세상에 아무도 없어질 때까지
음악을 계속 해야할 것 같다.

입덕 초기에는 마냥 활기차고 밝고 맑고 단순하고
그럴 것 같던 뜨뚜에게서 깊은 굴을 본 것 같아서
나로서는 다행이지만 또 뜨뚜에겐 무거운 무게이기도 하겠지.

 댓글

↳ ○○ 2017.09.24 14:38 (219.*.230.*)

존나 격공! 처음엔 마냥 해맑고 엉뚱하고 사랑스런 이미지가 앞섰는데 뜨뚜는 볼수록 복잡하고 섬세하
고 심지어 다크한 성향도 강한것 같다. 매우 솔직한 사람이지만 그 깊은 속에 의외로 쉽게 들어가기 힘
든 사람 같기도 하고..이조차도 다 궁예고 망상이긴 하지만..뜨뚜는 꼭 예술을 해야하는 사람인 듯하다
참 매력적이야

 댓글

↳ ○○ 2017.09.24 14:44

다크한데 중심을 잃지않고 있는 놈이라 좋다
어둠에 먹혀버리는게 아니라 어둠속에서도 두 발로 꼳꼳이 서서 눈빛 번쩍이며 당당히 서 있는 놈

마냥 해맑고 비글같기만 했다면 이렇게 몇년째 헤어나오지 못 할리가 없지

 댓글

↳ ○○ 2017.09.24 14:47

그렇다 그렇다
파도 파도 뭐가 나오는 놈이다
다른세상사람에서 어둠이 나를 숨겨준다는 말이 흑 들어오더라
그건 그 곡 리뷰글에서 다시 언급해야겠지만 흐흐
어떻게 기다리지!

 댓글

↳ ○○ 2017.09.24 15:08 (219.*.230.*)

맞다 맞아

병자 댓을 읽고나니 내가 격하게 애정하는 팔라 유비 혹은 눈악은 밥이 갑자기 무지하게 땡긴다

댓글

○○ 2017.09.24 11:28

사실 사랑해 유비 엄청 맘에 들지만 넘 칭량하기만 해서 가사 전달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다

오히려 타이틀 곡이 아니라 수록곡이 되었다면 가사 전달은 더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런어웨이의 가사 전달은 충실하지만 뭔가 상투적인 연출과 살짝 비교도 되기도 하고..

사랑해는 사실 이별을 고하는 곡이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널 향한 그리움, 미련은 지난 아름다웠던 사랑의 대가로 내가 감당할테니 라는 이별 선언

일상이 되어버리고 감흥이 사라지는 사랑의 소멸

설레임이 없어지고 무엇을 한 들 이미 해 본 것만 같은 기시감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기대가 커지는 너와

기대에 부흥하기엔 이미 지쳐버린 나.

설명도 설득도 이해도 그저 번거로워 수많은 우여곡절을 걸어가기보다는 그저 미안이라는 마창표를 찍어버리는 대화

누가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그저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만이 관건이 되어버린 너와 나의 관계.

참 씩씩한 곡인데 너무나 상쾌하게 풀어나가진 건 아닌가 싶지만 일단 유비 자체가 가진 그 상쾌한 느낌도 너무 좋고.

유비 자체는 수영해에 더 어울릴 것 같은

뭔가 한 켠 정도 뒤통수 때리는 느낌? 떠나가는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심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봄

댓글

↳ ○○ 2017.09.24 11:32

그런데 사랑해 곡 자체가 발랄하다 그래서 유비는 그런 곡의 느낌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고 몸감독에 빙의한 병자가 소심하게 항변해본다 ㅋㅋㅋ

댓글

↳ ○○ 2017.09.24 11:35

사실 음 보다보면 수영해 영상이랑 같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ㅋㅋㅋㅋ

댓글

↳ ○○ 2017.09.24 11:42

이별이 느껴지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찍지않았을까 생각도 한다. 사실 이 노래를 관통하는 이별은 꽤 괴롭고 지지부진한 감정인데 그걸 유비에 표현해버리면 자칫 상투적인 느낌이 되어 노래가 지닌 상큼함마저 즐기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

댓글

↳ ○○ 2017.09.24 11:46

게다가 같이 나오는 덩타인 런어웨이가 좀더 답한 느낌이라 상반되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찍은걸 수도 있다
러브 앤 폴이라는 앨범명에 충실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거지

댓글

↳ ○○ 2017.09.24 11:45 (219.*.230.*)

공감한다! 시간 앞에서 스스로 소멸하는 사랑의 끝을 상큼한 멜로디와 유비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맘에 들지만! 결국은 아플 수 밖에 없는 이별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면 더 좋았을거 같다! 지금도 좋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

댓글

↳ ○○ 2017.09.24 11:56

소소하게 달려가는 모습이라던지 비행기 가는 모습이라던지 그런게 있긴 한데
워랄까 그보다는 더 확 와닿는 씬이 딱 하나 숨긴듯 안 숨긴듯 뭉의 하게 있으면 좀. 너무 노림수라 오하려 에이 배렷다 싶으려나 ㅋㅋㅋ

댓글

↳ ○○ 2017.09.24 12:09

하긴 읊만 보고 있으면 이별이 아니고 막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 느낌이 들긴 한다 ㅋㅋㅋㅋ

댓글

○○ 2017.09.24 12:37 (219.*.230.*)

사랑해 덩고 영상 얘기도 해야지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전형적인 설정에 그렇게나 뻘한 노림수에 그렇게나 뻘하게 넘어가는 내 모습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뜨뚜가 귀여운건 언제나 그랬었지만 귀여우면서도 듬직한 남자로 보인건 처음인듯!
뜨뚜가 워낙 섹시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평범한 모습에서 오히려 더 섹시함이 느껴진다는게! 나에겐 좀 충격이었다
이 영상의 제작의도가 노래홍보인지 팬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뜨뚜가 처음으로 진짜 남자로 보이게 된 영상으로 기억에 남을듯 하다
존나 귀여운데 존나 설레는 것!

댓글

↳ ○○ 2017.09.25 12:44

처음으로 진짜 남자로 보이게 됐냐 ㅋㅋㅋㅋ
그간 그냥 애셋기로 보인거나 상남자 울겠네ㅋㅋㅋㅋㅋㅋ

사랑해 덩고는 펜션같은곳 같이 놀러간 현실 남친느낌이 나서 여자분들 충분히 설레고도 남을듯

댓글

○○ 2017.09.25 00:19

편안하고 발랄하고 행복감을 주는 비트라 책상위에 발 올리고 의자 뒤로 제끼고 마음 놓고 듣다가 가사 들으면서 다시 발 내리고 숙연해졌었다ㅋㅋ 이런 장르를 들으면 항상 휴가 가거나 소풍가는 느낌인데 가사 내용 때문에 소풍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소풍 갔다 집에 가는 그런 기분이 든다. 나들이 갔던 흥분이 약간 남아 있어서 그 여운 때문에 여전히 좀 좋기도 하지만 그게 끝나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크기도 하고 쓸쓸한데

컷가에는 놀러가면서 듣던 노래가 여전히 발랄하게 흘러서 괜히 섭섭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 아직 햇
별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즐거운 추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딱딱딱한 와중에 마음 한 구석은 서늘해지는
노래다. 트로피컬 하우스가 왜 여름 다 지났는데 이제 나와야 하는 의문을 해결해주는 가사였다. 나는 오래
사귀어도 순간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끊어내는 타입이라 미적미적 질질 끄는 느낌은 잘 모르는데 노래
들으면서 억지로 알게됐다 젠장ㅋㅋㅋㅋ

댓글

2017.09.25 00:23

이 노래는 진짜 이런 트로피컬 장르가 잘 어울린다 ㅋㅋㅋ
이런 느낌을 내려면 그 장르였어야 했을거 같고 ㅋㅋㅋㅋ

댓글

2017.09.25 00:38

바로 그거다ㅋㅋㅋ 트로피컬 장르여서 이런 상큼 씩씩한 느낌이 제대로다ㅋㅋㅋㅋ 가사가 이런데 비트
도 막 씩씩하고 우중충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것 같다 청명한 초가를 날씨에 잘 어울린다 아침 공
기는 맑고 좋은데 순간 으스스 몸 떨리는 느낌을 잘 살려내는 것 같다ㅋㅋ

댓글

2017.09.25 00:45

좀더 빨리 나왔으면 싶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나온거 같다 ㅋㅋㅋㅋ 덕분에
에 러브 앤 폴이라는 앨범명에 맞게 곡도 준비될 수 있었고

댓글

2017.09.25 00:46

뭔가 뜨뜻 특유의 미묘한 모순적인 매력이 잘 보이지 않냐
상큼하게 웃으며 조까씨발 똥고발랄하게 스텝 밟으며 이별

뭔말인지 나도 모르겠다만 ㅋㅋㅋㅋㅋㅋㅋㅋ
거칠고 잔인할 정도로 Raw한 날 것의 감성이 무지개 끝에 있다는 황금 단지 같은 것에 들어있는 걸
보는 기분?
아 표현이 안 되서 미치겠는데 대충 알아먹으리라 믿는다 ㅋㅋㅋㅋ

댓글

2017.09.25 00:57

알아들었다 ㅋㅋㅋㅋ 너 병자 맘이 내 맘이다 ㅋㅋㅋ

댓글

2017.09.25 01:05

ㅎㅏ 너병자
그러다 내가 뜨뜻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가

댓글

2017.09.25 01:05

으악ㅋㅋㅋ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ㅋㅋㅋ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뜨뜻가 겁나 커엽고 사랑스럽게
얼굴 꾸기고 웃으면서 약간 미안한듯 머뭇거리다가 조용조용 달콤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랑
을 노력한다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니란 거야" 하고 팩트폭력 하는 것 같다 겁나 시발 날것의 팩폭으
로 똥들똥들 쳐맞고 있는데 애셋기 미소가 여전히 달달하고 청량해서 내가 쳐맞는지도 모르고 눈
꺼벅꺼벅 하면서 듣고 있다가 순간 깨닫고 데미지가 확 들어와서 평평 울고싶어질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다ㅋㅋㅋㅋ근데 저셋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서 오조오억배로 더 분하고 빠질 것 같다
ㅋㅋㅋ 난 이런 식으로 알아먹었다ㅋㅋㅋ아님말고!ㅋㅋ

 댓글

 ○○ 2017.09.25 09:29

뜨뚜가 가끔 그렇게 관조적으로 볼때가 있다 후후

 댓글

 ○○ 2017.09.25 00:44

소풍갔다 집에 가는 느낌이라니
정곡을 찢린 것 같다 으허

 댓글

○○ 2017.09.25 08:47

언젠가는 그냥 덩덤한 어쿠스틱? 같이 유희조리는 듯 한 사랑해를 들어보고 싶다

 댓글

○○ 2017.10.25 00:27

얼마 전 머글이 이 곡에 대해 쓴 리뷰를 읽어봤다
노래가 너무 좋지만 가사의 씁쓸함 때문에 이해가 안 가며 노래가 너무 좋지만 가사 때문에 장벽이 생긴다
는

가사를 어렵게 쓴다는 것
표출해야 하는 청량함과 그 속에 담겨져있는 어두움
많은 것이 원인이겠지만 이 곡은 다크 초콜릿을 혀 위에 놓고 녹여먹는 것만 같다
코코아 속의 카페인과 함께 하는 상승 작용 그리고 그 씁쓸함과 입에 남는 텅텅함

나는 이 곡이 싫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인 것만 같아서
그런데 나는 이 곡이 좋다
그 치열함 마저도 청량하게 담아낼 수 있는 너여서

 댓글

 ○○ 2017.10.25 00:30

나는 가사가 참 와닿고 좋았는데 그런 리뷰도 있었다니 몰랐다 ㅋㅋㅋ
나는 뜨뚜가 가사 어렵게 쓰는데 좋다 ㅋㅋㅋ 그게 좀더 뜨뚜의 생각이 잘 드러난거 같아서 ㅋㅋㅋ
너무 쉽게만 표현되는 가사는 그 진심이 한번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냥 나한테 좀 그런편이다 ㅋㅋㅋ

 댓글

 ○○ 2017.10.25 00:37

나도나도 너무 쉬운 가사는 금방 질려

 댓글

Comments '102'

« 1 2 3 »

↳ ○○ 2017.10.25 00:30

그리고 작은 망상을 해본다
사랑에 막 빠진 누군가가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너무나 좋아라 하며 데이트나갈 옷을 고르고 치장을 하
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랑이 흐릿해지고 지쳐가던 어느 날 문득 흘러나오는 이 곡의 가사를 곰씹게
되는

댓글

↳ ○○ 2017.10.25 00:31

흠 나는 그런 노래여서 더 좋았는데...
그냥 사랑노래였으면 너무 뻘뻘했을까라 생각함
워 다양한 생각과 감상들이 있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장벽이 생길정도로 처절하진 않지 않나 ㅋㅋㅋㅋ

댓글

« First 1 2 3 Last »